

CFE REPORT

CFE Report

2017. 11. 01

한미 FTA 5년 평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홍경서

(Toronto Academy)

<요 약>

2017년으로 발효 5년째를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대외정책기조로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6년 6월 협상을 개시하여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7년 4월 초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한미 양국의 국내 비준절차 지연으로 2012년 3월에 발효되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성고가 뚜렷했고, 단기간내 높은 자유화 비율과 폭넓은 제도 개선이 포함된 한미 FTA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우수한 편이다. 국제무역연구원(2017)의 조사에 의하면, 설문응답한 기업의 79.5%가 한미 FTA를 활용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기업경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미국 및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세계 교역규모와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연평균 각각 -2.0%, -3.5% 줄었으나, 한미 간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한 것은 한미 FTA 덕택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발효 5년간 미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FTA 수혜/비수혜 품목이 고르게 증가했다.

한미 FTA 추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본격적으로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는 점도 평가되어야 한다. 한미 FTA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몸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7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총 16개의 FTA를 발효시켜 칠레, 멕시코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 망을 확충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한미 FTA를 타결했기에 가능했다.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우수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측은 한미 FTA 이행상의 문제점, 즉 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협정 이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소함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FTA 전문인력 양성, 통상정보 제공, 원산지검증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2017년 초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2017년 6월말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한미 FTA 재협상(개정) 요구를 했다. 한미 양국은 2017년 10월 한미 FTA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양국간 협정 개정을 사실상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FTA 폐기론'까지 언급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 요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은 아직 미흡하다. 2017년 7월말 통상교섭본부가 부활되었지만, 10여년전 한미 FTA 협상 당시에 비해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취약한 편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각국의 협상 개시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2018년이나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9월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의 통상당국 및 산업계를 긴장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언급이 '실체적인 위협'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나라 통상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의도적 발언이며, 의회, 상공회의소 등 미국내에서도 한미 FTA 폐기 언급에 반발하고 있다.

이제 한미 FTA 개정 협상은 기정사실화되었다. FTA 개정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무역불균형 해소이므로, 통상리스크를 줄이면서 한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부활된 통상교섭본부의 인력을 보강하고, 유관 부처 간 협력체제를 통해 범국가 차원의 협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협상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민감한 농업분야와 서비스 개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국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헌법에 따라 통상정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이 막강하므로 대의회 로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미 FTA 폐기는 미국 산업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리 산업경제계는 미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회 등을 대상으로 통상로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한미 FTA 회고

II. 한미 FTA 파급영향

1. 한미 FTA 종합 평가
2. 대미국 교역관계
3. 고용 및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III. FTA 네트워크와 한미 FTA

1. FTA 추진 로드맵과 한미 FTA
2. FTA 양적-질적 향상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I

한미 FTA 회고

- 2017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째이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대외정책기조로 한미 FTA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 ▶ 한미 FTA 논의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2004년에 공식적인 의견 교환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됨.
 - ▶ 2006년 6월 협상을 개시하여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7년 4월 초 극적으로 협상 타결
 - 협정 이행도 순탄하지 않아 협상 타결 5년만인 2012년 3월에야 지각 발효
 - ▶ 의회로부터 협정 승인을 받을 자신이 없었던 당시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추가협상을 제안
 - ▶ 2011년 한해 내내 추가협상 협정 서명에서부터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 및 대통령의 발효 업무를 거쳐 2012년 발효
 - 한미 FTA 발효 이후 몇 년간 무역성과가 뚜렷했고, 단기간내 높은 자유화 비율과 폭넓은 제도 개선이 포함된 한미 FTA에 대한 기업의 평가도 우수
 - ▶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2017)은 설문에 응한 기업의 79.5%가 한미 FTA를 활용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기업경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었다고 답변
 - 농업계, 노조 등이 주축이 된 한미 FTA 협상 반대 시위로 국론분열 양상이 나타날 정도로 협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음.
 - ▶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에 대한 광우병 쫓불시위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맞기도 했음.
 - ▶ 또한 일부 언론은 FTA로 인한 종합적인 파급효과보다는 지역적인 문제점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FTA 통상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흐리게 하기도 했음.
 - ▶ 광우병 확산, 의료비 인상, 식물정부 등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난무하였으나 협정 발효 5년 차가 되도록 이러한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 광우병 논란이 된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 우려 확산으로 미국산 수입

이 큰 폭으로 줄어 호주가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점유율 1위로 올랐으나, 201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15만3천톤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쇠고기 수출 1위 국가 자리를 탈환했음.

- 한미 FTA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FTA ‘몸값’이 크게 올랐고, 현재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
 - ▶ 세계 20대 경제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세계 주요 거대 경제권과 FTA를 모두 체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 2013년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를 폐지하고,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신설하였지만, 기대효과와는 반대로 통상정책 역량은 크게 약화
 - ▶ 통상정책은 산업정책에 휘둘렸고, 통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악화
 - ▶ 국내에서 퇴보적인 통상정책 구도가 형성된 시점에 미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 문재인 정부는 약화된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통상교섭본부를 부활했지만,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인력 확보와 유관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소관 부처만으로는 기능을 하기 어렵고,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
 - ▶ 통상정책 역량을 한미 FTA 협상 당시 수준으로 단기간에 확충하지 않으면 한미 FTA 개정에 대한 미국의 거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임.

II

한미 FTA 파급영향

1. 한미 FTA 종합 평가

-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2017)은 한미 FTA를 상호 ‘윈-윈(win-win)하는’ 협정으로 평가
 - ▶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기조, 성장과 무역 간 시너지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FTA 발효로 인해 한미 양국간 교역은 증가했음.
 - ▶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과 상호 투자 확대로 FTA 경제 효과를 체감했음.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 연도인 2016년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다음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협정으로 평가
 - ▶ 하지만 2017년에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총체적이고 완벽한 재앙(total and complete disaster)”으로, 한미 FTA를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로 규정짓고 개정 협상을 지시
 - ▶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 FTA를 대통령 혹은 정권에 따라 정치적 관점에서 달리 평가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미국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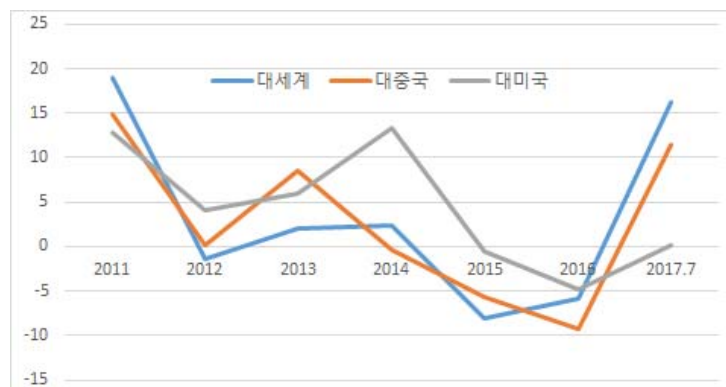
- 어떤 FTA든 협정 발효 이후 사후적으로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음.
 - ▶ FTA의 영향은 수출입 무역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수출입 실적에 따라 산업별 생산활동과 투자가 영향을 받게 됨.
 - ▶ 이러한 생산활동은 국내총생산(GDP)과 취업률 등 거시경제지표로 계산
 - ▶ 현실 경제는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영향을 FTA의 효과만을 분리해 내는 것이 어려움.
 - ▶ FTA가 발효되고 경제실적이 양호하면 FTA 덕택인 것으로 간주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FTA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통상전문가들이 FTA 협정 내용을 중심으로 수출입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FTA 영향이 무역이론이 제시하는 바

와 같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됨.

2. 대미국 교역관계

- <그림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대세계 및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2대 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은 최근 들어 대세계 수출증가세에 크게 뒤지고 있음.
- ▶ 한미 FTA가 이행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대미국 수출은 대세계 수출증가율을 능가했으나, 2017년의 경우 큰 폭의 대세계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은 2016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은 이미 얼어붙고 있음.

<그림 1> 우리나라의 대세계,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에서 추출

- 2017년 대미국 품목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향후 대미국 수출을 낙관할 수 없음.
- ▶ 우리나라의 대미국 10대 수출 품목 중 1~3위 수출 품목과 7~9위를 차지하는 3개 품목 총 6개 품목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되었고, 수출이 늘어난 품목은 4개임.
- ▶ 상위 1~3위 수출 품목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2016년 11% 수출 감소에 이어 2017년 수출액도 4.7% 악화
- ▶ 2위 및 3위 수출품목인 이동통신기기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각각

37.4%와 24.2%나 큰 폭으로 줄었음.

- ▶ 수출이 줄어든 품목은 대부분 내구소비재이고, 미국 경제가 장기 활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점은 한미 통상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큼.

<표 1> 우리나라의 대미 품목별(SITC 5단위) 수출 실적 및 무역수지

(단위: 억달러, %)

순위	품목명	2016			2017.7		
		수출액	증가율	무역수지	수출액	증가율	무역수지
		665	-4.8	232	397	0.1	96
1	자동차	155	-11.0	138	91	-4.7	81
2	이동통신기기	65	3.3	63	26	-37.4	21
3	자동차 부품	39	2.3	36	18	-24.2	17
4	석유와 역청유	24	-15.0	22	18	29.9	17
5	전산장비	14	-29.9	13	13	64.3	13
6	기억장치	10	35.8	8	8	78.7	7
7	가정형 냉장고	11	0.6	10	6	-4.3	6
8	승용차 타이어	11	-1.1	10	6	-9.1	6
9	반도체 디바이스	13	99.4	12	5	-39.2	5
10	유정용 케이징/튜브	3	11.0	2	5	528.1	5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 특히 2017년 6월말 한미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무역불균형 품목으로 지목했던 자동차의 수출이 크게 악화
 - ▶ 한미 FTA가 이행된 2011년 대미국 수출액은 86억 달러였으나, 이후 매년 두 자리 수 수출이 증가하여 2015년에는 두 배 수준인 174억 달러로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수출이 크게 줄었음.
 - ▶ 반면, 미국산 차량 수입은 2011년 3억 달러에서 2016년 17억 달러로 크게 증가
 - ▶ 참고로 2010년 한미 FTA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협정이행 시점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 8%를 4%로 낮추고 작년에 철폐한 반면, 미국은 2.5% 관세를 2015년까지 변동없이 유지하다 협정 이행 5년차인 2016년 폐지
 - ▶ 우리나라의 대미국 자동차 수출은 FTA와 무관하게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에 줄어든 것은 노조의 파업 외에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움.

-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은 부진
 - ▶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연평균 0.7% 성장한 것을 제외하면, 일본, 중국, EU 등에 대한 수출은 줄었음.
 - ▶ 하지만, 미국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3.4% 증가율을 기록하며 다른 주요국 수출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보였음.
- 한편,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입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0% 위축되었으나,¹⁾ 대미국 수입 감소율은 평균 0.6%로 낮아 한미 FTA가 교역규모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표 2> 최근 한국의 주요국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년차)	5년평균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증가율
미국	562.1 (12.8)	585.2 (4.1)	620.5 (6.0)	702.8 (13.3)	698.3 (-0.6)	664.7 (-4.8)	3.4
일본	396.8 (40.8)	388.0 (-2.2)	346.6 (-10.7)	321.8 (-7.2)	255.8 (-20.5)	243.6 (-4.8)	-9.3
중국	1,341.9 (14.8)	1,343.2 (0.1)	1,458.7 (8.6)	1,452.9 (-0.4)	1,371.2 (-5.6)	1,244.3 (-9.3)	-1.5
아세안	718.0 (35.0)	791.5 (10.2)	820.0 (3.6)	845.8 (3.1)	748.2 (-11.5)	745.3 (-0.4)	0.7
EU	557.3 (4.1)	493.7 (-11.4)	488.6 (-1.0)	516.6 (5.7)	480.8 (-6.9)	466.1 (-3.0)	-3.5
세계	5,552.1 (19.0)	5,478.7 (-1.3)	5,596.3 (2.1)	5,726.6 (2.3)	5,267.6 (-8.0)	4,954.7 (-5.9)	-2.3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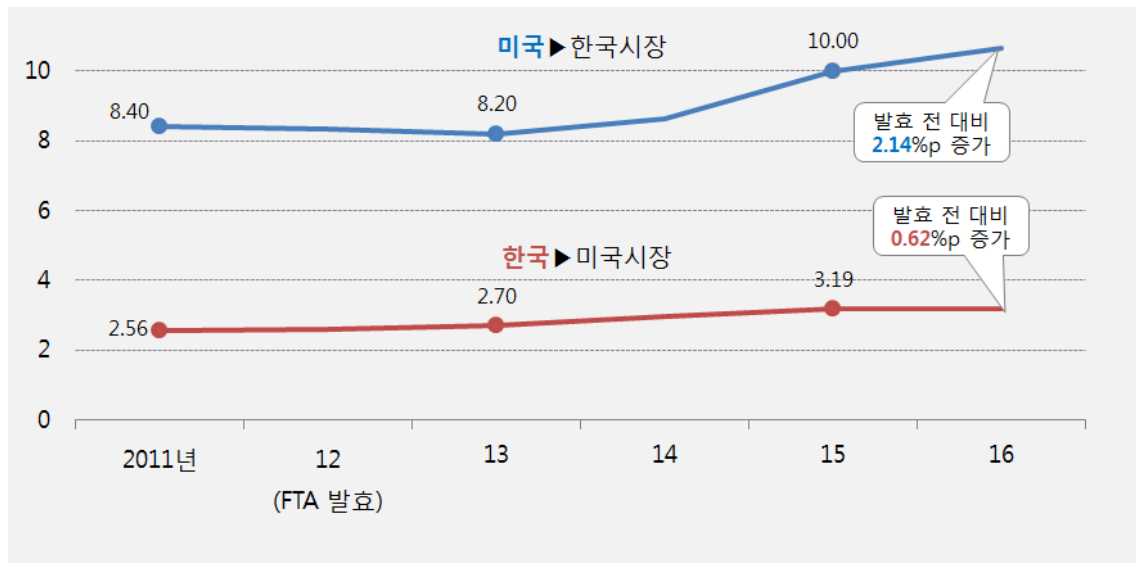
-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세계 교역규모와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연평균 각각 -2.0%, -3.5% 줄었으나, 한미 간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
 - ▶ 그 결과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8.50%에서 2016년 10.64%로 높아졌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점유율도 같은 기간 2.57%에서 2016년 3.19%를 기록²⁾

1)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아세안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3.6%, -7.0% 감소하였으나, 대EU 수입은 평균 1.8% 증가. 이는 영국산 브렌트유로의 원유 수입선 전환 영향임.

- ▶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발효 5년간 미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FTA 수혜/비수혜 품목이 고르게 증가
- ▶ 발효 5년차인 2016년에는 미국 측 2.5% 관세가 철폐되며 기대를 모았던 승용차 수출이 해외생산·판매 확대 및 태풍에 따른 국내 생산 차질로 감소하면서 FTA 수혜품목 수출은 전년대비 6.0% 감소

<그림 2> 상대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

(단위: %)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 서비스분야에서는 미국이 무역수지흑자를 누림.
 - ▶ 상품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수지흑자가 FTA 발효 전 116억 달러에서 협정 발효 5년차에 233억 달러로 두배 늘어났지만, 서비스분야에서는 적자규모가 같은 기간 110억 달러에서 2015년 141억 달러로 31억 달러 악화

2) 한미 상대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추이 통계는 다음과 같음.

<표> 한미 수입시장에서 상대국 점유율 추이 통계

(단위 : %, %p)

	2007	2009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발효 전 대비 증감
한국 점유율	2.43	2.52	2.57	2.59	2.75	2.97	3.20	3.19	+0.62%p
미국 점유율	10.43	8.99	8.50	8.34	8.05	8.62	10.09	10.64	+2.14%p

자료: 국제무역연구원(2017)

- 또한 한미간 투자도 쌍방 모두 증가하였음.
 - ▶ FTA 발효 전 5년(2007~2011) 기간에 우리나라의 대미국 투자는 231억 달러이었으나, 발효 후 투자규모는 370억 달러로 늘었음.
 - ▶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93억 달러에서 202억 달러로 늘었으나,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의 투자액이 많음.
 -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미국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한미 양국간 투자 불균형은 더 커질 전망.³⁾
 -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31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조립공장을 짓기로 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미국 남부지역에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3. 고용 및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 한미 FTA 이행 5년을 고찰해 보면,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의 실적은 당초 기대에 상당부분 부합하지만, 무역투자 효과가 국내 고용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통상당국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발효 시 10년간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EU와의 FTA가 장기간 25만 명과 한중 FTA 32만 명의 고용 효과를 제시했지만, 국내 일자리 사정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 ▶ 특히 최근 청년실업률은 9.4%로 외환 이후 최고로 높은 상황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고용 상황을 FTA 효과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오히려 한미 FTA 발효로 일자리 악화를 다소 줄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 과거와 달리 동일 금액을 수출하더라도 일자리 창출 개수가 작아지고 있음은 인정해야 함.
 - ▶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supply chain) 확산으로 수출의 순부가가치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계로 대체된 생산활동이 많아졌기 때문
 - ▶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경제 구조와 달리 오늘날에는 생산단계별 가치사슬의 세분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으로 수출입 규모에 비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과 국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가 훨씬 작아졌음.

3) 국제무역연구원(2017)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대미국 투자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은 4만 7천개(2014년)임.

-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의 글로벌 분업체계 하에서는 FTA 포용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FTA 파급효과가 일부 계층과 지역에 국한되었을 뿐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함.
 - ▶ 이는 비단 한미 FTA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발효시킨 다른 FTA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여러 가지 요인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다른 FTA에 비해 한미 FTA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도 개선되어야 함.
 - ▶ 국제무역연구원(2017)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8.0%가 한미 FTA를 수출입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청이 조사한 한미 FTA 수출 활용도 70%대와 유사
 - ▶ 하지만, 이는 EU, 칠레, 페루 등과의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수입에 있어서는 활용률이 더 낮음.

<표 3> 우리나라 FTA의 수출 및 수입 활용율

	상대국	2013.상	2014.하	2015.상	2015.하	2016.상	2016.하	2017.상
수출 활용 율	칠레	78.9	80.5	78.6	80.7	80.1	78.6	78.4
	EFTA	80.3	79.6	81.0	80.4	81.5	80.4	76.9
	아세안	36.4	37.0	40.3	42.5	43.7	46.0	44.6
	인도	43.2	56.3	62.1	62.4	63.6	65.8	66.9
	EU	85.6	85.3	86.7	85.3	85.2	84.8	85.0
	페루	91.9	90.5	89.8	83.6	83.0	83.3	77.9
	미국	77.0	76.2	78.8	79.1	72.2	75.6	82.6
	터키	69.4	72.7	77.8	79.1	78.9	80.4	76.3
수입 활용 율	칠레	98.5	98.3	98.8	98.8	99.5	99.3	99.4
	EFTA	41.8	41.6	40.8	43.7	52.4	56.8	60.8
	아세안	74.1	73.8	71.5	75.4	70.9	78.4	62.8
	인도	61.4	67.0	71.3	73.1	60.5	56.0	60.0
	EU	68.6	66.8	68.5	71.0	69.8	72.1	74.5
	페루	97.9	89.2	91.1	90.6	53.6	77.5	58.8
	미국	68.3	66.0	67.8	67.5	68.6	70.7	69.7
	터키	69.4	64.4	67.7	69.1	67.4	65.9	66.6

자료: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일반적으로 FTA 미활용 이유로 FTA 활용 전문인력 부족, 활용비용 대비

낮은 실익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검증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

- ▶ 전통적으로 미국 세관은 정기적으로 강도 높게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미충족 혹은 자료 미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즉, 일종의 일벌백계주의(一罰百戒主義)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검증을 우려하여 FTA 활용을 기피하는 측면이 있음.
 -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FTA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가동함으로써 원산지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으나, 국내 고용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 실제로 무역액 기준으로는 FTA 활용률이 70%이나 품목 기준으로는 50% 정도에 머물고 있음.⁴⁾
-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한미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간재를 납품하는 대기업의 원산지관리체계에 맞게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추가부담을 안고 있음.
- ▶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 확인 및 검증 대비 증빙서류 관리에 수반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대학 등에 설치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4)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총 수출 품목 수 대비 한미 FTA 활용 품목의 개수와 비중은 다음과 같음.

<표> 총 수출 품목 수 대비 한미 FTA 활용 품목의 개수와 비중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6년 (5년차)
품목수(개)	3,521	3,795	3,829	3,888	4,111
비중(%)	45.6	50.4	49.8	50.0	51.0

자료: 국제무역원(2017)

III

FTA 네트워크와 한미 FTA

1. FTA 추진 로드맵과 한미 FTA

- 우리나라 FTA 정책 모색 초기부터 한미 FTA 추진 필요성 제기
 - ▶ 1990년대 중반 국내에서 처음으로 필자가 FTA 정책 연구를 할 당시 미국을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 국내외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칠레를 첫 FTA 대상국으로 결정할 당시, 일부 통상전문가들은 NAFTA를 벤치마크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했었음.

- 칠레와의 FTA 협정을 서명한 2003년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FTA 추진 로드맵”을 연구하면서 한미 FTA는 핵심 고려사항 중의 하나
 - ▶ 당시 미국 통상당국은 우리나라와의 FTA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기에 공식적인 논의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음.
 - ▶ 결국 FTA 추진 시점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고 미국을 장기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국가로 분류
 - ▶ 당시 장기에 대한 시점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았지만, 대략 10년 정도를 예상하고 FTA 로드맵 확정
 - ▶ 한미 FTA는 우리나라 FTA 로드맵 상의 최대 과제이었고, 2012년 FTA 발효로 최대 FTA 성과를 거둠

- 미국과의 FTA가 시사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미국을 한미 FTA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 전개
 - ▶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외곽 때리기’ 전략에서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먼저 시작

- 한미 FTA 협상 개시 이후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본격적으로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발전
 - ▶ 한미 FTA 추진 동력은 아세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인도, 유럽연합(EU) 등과의 FTA 협상 타결에 기여하거나 신규 FTA 추진을 가능하게 하였음.
 - ▶ 대표적인 예로 한-EU FTA를 들 수 있는데,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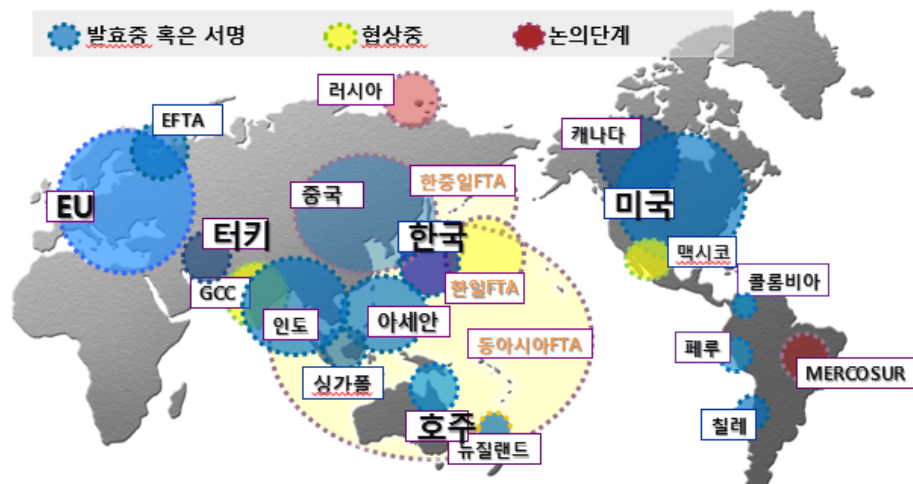
EU는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음.

- ▶ 하지만, 한미 FTA 협상 개시가 발표되자, EU는 우리나라 통상당국을 접촉하여 한-EU FTA 논의를 요청했고, 2006년 5월 예비협의 개최에 합의하였음.

2. FTA 양적-질적 향상

- 2017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총 16개의 FTA를 발효시켰고,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수 FTA 협상 지속
 - ▶ 칠레, 멕시코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 망을 확충한 국가가 되었는데, 이는 2006년에 한미 FTA 협상을 개시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 따라서 2003년 설정했던 FTA 로드맵의 목표 이상으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음.

<그림 3>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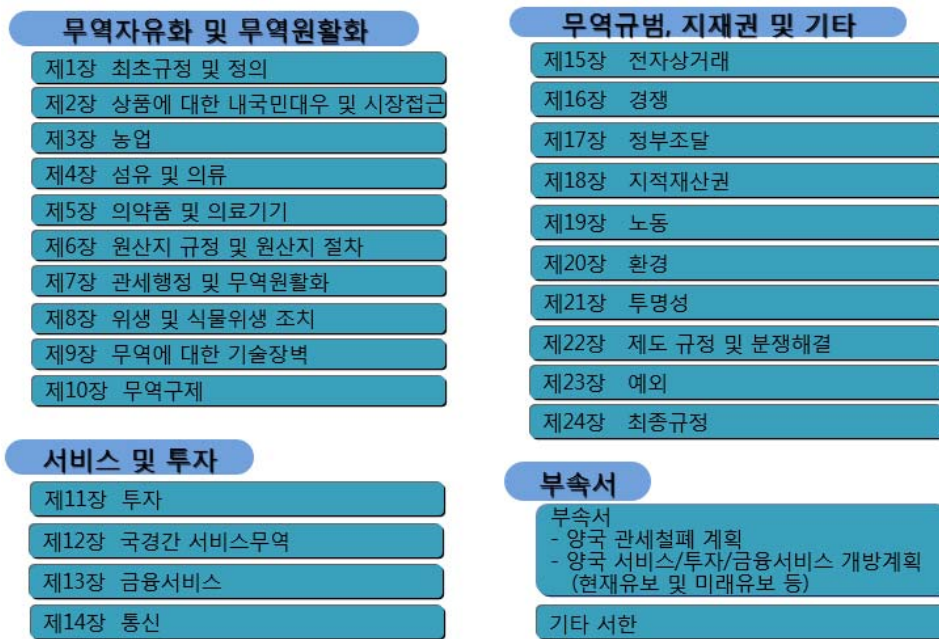


- 또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73%가 FTA 체제하에서 거래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FTA 비중이 커졌고, WTO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대외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
 - ▶ 이 과정에서 FTA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었고, 농업개방과 같이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FTA 반대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었음.
 - ▶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 반대론자가 많았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FTA 개정(폐지) 요청을 우려하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1년에 걸친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당시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FTA 협정문에 합의
 - ▶ <그림 4>에서 보듯이 24개의 장(Chapter)과 부속서 및 서한으로 구성된 개방 수준과 포괄 범위 면에서 모범적인 협정 타결
 - ▶ 한미 FTA 협정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기본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국영기업, 경쟁력, 개발협력, 중소기업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TPP는 한미 FTA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그림 4> 한미 FTA 협정문 구조(장)



- 높은 수준의 협정 타결로 국내 논란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개방경제체제 확립에 기여했으며, 국내 낙후된 경제제도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음.
 - ▶ <표 4>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가 개정된 법률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음.

<표 4>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 개정 예시

법률명	개정 내용
특별소비세법	§자동차 세제 개편
지방세법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
행정절차법	§입법 예고기간 연장
저작권법	§저작권법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복제권 인정 및 예외규정 마련 §온라인상 저작물의 접근통제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및 예외규정 마련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기준 강화 등 근거조항 마련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기기 인증 시 지정된 미국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방법, 절차 등의 하위법령 위임근거 마련
약사법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신약 등 자료독점권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법한 사업자가 범위반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당해 행위의 시정, 피해자구제 등 시정방안의 타당성의 인정되면 별도의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동 시정방안의 조치를 명하는 동의명령제 도입

- 한미 FTA 발효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로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를 들 수 있음.⁵⁾
 - ▶ 저작권 보호기간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고, 온라인상 저작물의 접근통제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를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했고, 일반 국민의 지재권 보호 인식을 개선시키고, 공공기관의 지재권 보호 역량을 개선시킬 수 있었음.
 - ▶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지재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지재권 보호 수준을 업그레이드
 - ▶ 과거 우리나라는 불법복제 등 지재권 침해 정도가 심한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지재권 체계를 세계적으로 수준으로 강화하여 지재권 보호 모범 국가로 발전

5) 지재권에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등이 포함됨.

IV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화 이후 오랫동안 제1위 무역대상국이며, 한미 FTA를 통해 경제동맹 관계 구축
 - ▶ 중국을 통한 간접수출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 제1위 수출대상국
 - ▶ 10여 년 전 FTA 협상 당시 국내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협상이 순탄하지 않았으나, 한미 FTA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리더십으로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이 가능했음

-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
 - ▶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
 - ▶ 2016년 한국과 미국의 상대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3.19%과 10.64%인데, 이는 협정 발효 전인 2011년 대비 각각 0.62%포인트와 2.14%포인트 개선된 것임.

- 협정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소함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함.
 - ▶ 또한 국내적으로는 FTA 전문인력 양성, 통상정보 제공, 원산지검증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 한미 양국은 2017년 10월 한미 FTA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양국간 협정 개정을 사실상 합의
 - ▶ 트럼프 행정부는 'FTA 폐기론'까지 언급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 요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은 아직 미흡
 - ▶ 2017년 7월말 통상교섭본부가 부활되었지만, 10여 년 전 한미 FTA 협상 당시에 비해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취약한 편

- 한미 FTA 개정협상은 각국의 협상 개시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2018년에나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임.
 - ▶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언급이 '실제적인 위협'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나라 통상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의도적 발언이며, 의회, 상공회의소 등 미국내에서도 한미 FTA 폐기 언급에 반발하고 있음.

- FTA 개정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무역불균형 해소이므로, 통상리스크를 줄이면서 한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 2017년 7월 부활된 통상교섭본부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여야 하며, 소관부처에 분산된 통상협상역량을 통상교섭본부로 집결하여 국가 차원의 협상력을 제고해야 함.
 - ▶ 협상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민감한 농업분야와 서비스 개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국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 미국의 경우 헌법에 따라 통상정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이 막강하므로 대의회 로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 한미 FTA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미 FTA 폐기는 미국 산업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리 산업 경제계는 미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회 등을 대상으로 통상 로비를 강화해야 할 것임.

참고 문헌

- 국제무역연구원(2017),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 김현중(2016), “한미 FTA를 말하다” 흥성사
- 안준성(2017), “한미 FTA 재협상: Think Big 전략으로 대비해야”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76호
- 정인교(2016), “FTA 통상론” 을곡출판사
- 정인교(2017), “[시론]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산업부의 통상 역량” 서울경제신문 9월 12일자
- 최석영(2016), “FTA 협상노트” 박영사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16), “Economic Impact of Trade Agreements Implemented Under Trade Authorities Procedures, 2016 Report “, USITC Publication Number: 4614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17), “The Year in Trade 2016 - Operation of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USITC Publication Number: 4711